

자에게 인식시키지 못한 결과이다. 83년은우리가 이점을 연구하고 또 홍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 소비를 다원화 할 것이다.

일말에서 알다시피 계란과 닭고기는 일반적으로 가난한 서민층에서 인기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위에서 말한 전국민이 즐겨 먹을 수 있는 요리개발이 없었고 과거의 요리방법 밖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생활 속에서는 도외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로 좀 더 다양한 요리연구가 시급한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육류 기호도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순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호는 변할 수 있고 또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닭고기를 요리해 먹는 방법은 옛날부터 우리가정에서 요리할 때 국과 찜이었고 80년도 부터 튀김요리인 켄터키 치킨이 상륙하여 소비자로부터 환영을 받게되어 소비촉진의 전환기에 이르렀다. 금년도에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육류소비 경쟁에서 단연 양계산물이 앞장 설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 해야 할 것이며 아무리 좋은 뜻과 우수한 상품이 있어도 제대로 전달이 되지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다.

금년 한해는 양계인들이 긍지를 살려 스스로 자기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 소비촉진 홍보에 적

극성을 가지고 참여하길 바란다. 금년도에 축협중앙회에서 현재와 같이 부분적인 홍보를 하겠지만 우리는 거기에 만족 할 것이 아니라 양계인 각자 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홍보사업에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협회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 되어 있겠지만 전국 양계인들은 지역적으로 분회 및 계우회 별로 계획을 세워 거국적인 홍보를 해야 하며 우리 양계업의 유관업체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기대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금년은 양계산물의 생산원가를 절감해 양계업도 반석같은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우리 각자의 사업이 안정되고 향상되어야 단합과 참여도있게 마련이다. 신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와 슬기로운 설계로 경영을 성실히 하여 원가절감을 극대화할때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며 그러자면 자기 분수에 맞는 규모와 병아리 사료 구입의 신중과 현금구입, 사육기술 개발 및 향상 등으로 알찬 해가 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끝으로 금년은 모든 양계인의 공통된 마음을 한데모아 자신의 지위향상을 위해 힘껏 노력할 것을 바라면서 모두의 건투를 빈다.

새해 아침에

사료값 안정, 계란값 안정, 새로운 질병의 방어가 꼭 이루어져야

천 용 수

(채란양계업)



1983년 새해아침에 뜻밖의 원고부탁을 받고 보니 조그만 채란업을 하는 사람으로 황송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다.

1979년 이후의 양계업 불황은 예상외로 커서 많은 사람들의 공든 탑을 무너뜨렸고 경영합리화의 새로운 과제를 남기기도 했다. 경영의 합

● 1983년에 바란다

리화는 경영주의 허리띠를 세차게 조여 들었고 세계의 주변정세는 정신없이 변화를 요구했다.

계속되는 옥수수값의 상승으로 사료값은 올랐고 인력난은 기계화의 길을 재촉했다. 77년 이전의 호황은 공급과잉을 유발시켜 불황으로 인한 소비억제로 난가를 원가이하로 만들었다. 이젠 좀 나아지겠지. 이제는 좀... 하는 기대속에 계속된 투자로 공급과잉의 늪을 헤메는 동안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번진 I.L.T에 의해 수수감소가 된 탓인지 난가의 상승은 순간적이거나 예상을 초월했고 난가가 떨어진 지금에도 80년, 81년 보다는 나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사료값의 인상이라는 태풍이 밀려오니 풍전등화 격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 1983년 새해아침에도 역시 다음과 같은 생각들이 올해는 이루어지길 바란다.

첫째, 사료값의 안정

둘째, 난가의 안정

셋째, 새로운 질병의 방어인 것이다.

사료값은 관세, 어분, 대두박, 강피류 등의 가격인상으로 오른다 치더라도 안정요인이 될 수 있는 진흥기금의 인하를 축협중앙회에 요구하고 싶다. 대부분 배합사료에 의존해야 하는 내 입장에서는 말이다.

난가의 안정은 필자가 양계업을 해온 이후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난가는 최고가를 기준으로 35% 정도가 하락했다가는 상승되고는 하는 변화가 있다. 이런 시세의 변동이 어느 業種에 있는가? 가격이 맞지 않는다고 팔지 않을 수도 없다. 그렇다고 직접 소비시키기도 불편한 점이 많아 이에 규정적인 질서를 갖춘, 말하자면 조합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예를들면, 생산된 계란의 전량을 축협 등의 기관에서 구매해서 특, 대, 중, 소 분리한 다음 업소나 공장이나 상인에게 분배하며 소매까지 겸해 과도한 중간이윤을 견제하거나 하는 방법을 택해 소비자는 싸게, 생산자는 비싸게 구입하고 파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계란가격은 kg당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해 주었으면 한다. 그렇다면 필자 생각에 생산자가 조금은 더 가격 면에서 보호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g을 기준으로 특, 대, 중, 소, 경 등으로 구분되어 갯수로 판매되어온 계란은 항상 크기로 인한 시비가 야기되어 kg으로 판다면 특, 대, 중 등으로 일단 구분된 알을 크든 작든 무게로 판매되니 소비자가 고르거나 소매자가 잔알만 남거나 하는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모자란다고 보다는 남은 중량을 생산자가 유리하게 취하지 않게되나 기대해본다.

82년 6월 29일은 내게는 악몽같은 날이었다. 양계장 출입구쪽에서 한두마리의 이상한 행동을 취하는 닭을 발견했다. I.L.T에 걸린 것이다. 순간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다. 강화도에서 I.L.T 발생소식을 듣고 불안해 하던 터이어서 더더욱 그랬다.

부검을 해보아도 I.L.T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 뿐이었다. 30일, 1일, 2일 첫페사가 발생했다. 2마리 3일, 4마리 4일, 8마리 5일, 16마리... 날이 더해갈수록 폐사수는 배수물 더해갔고 산란율은 비례해서 70%가 떨어졌다. 10일을 넘어서는 다른 계사에서도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감염계군의 분리관리 및 주변소독의 철저에도 이미 붙은 불길은 수습할 수 없었다. 이후 구입한 백신으로 감염되지 않은 계군을 살릴 수 있었고 13%의 폐사로 그칠 수 있었지만 난과 원인으로 생각되는 철저한 소독이 교훈으로 남았다.

이렇듯 82년이 어수선하게 지나가니 83년에는 1) 사료값의 안정, 2) 난가의 안정, 3) 새로운 질병의 방어가 기도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 새해에는 조그만 소득이라도 더 올려서 독립기념관 성금도 조금 더 내고싶고, 가족과 피서도 가고싶고 좋아하는 바그너의 음반도 사고싶은 것이 그저 채란업을 천직으로 아는 작은 농민의 소망이다.